

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견

- '가' 앰허스트

회의록 앰허스트 질의응답

Q	A
실제 운영 가능한 인력?	17명으로 구성. 분업하여 콘텐츠 마다 집중인력을 분배.
워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?	상징물을 통해 디자인워크 행사 진행을 대중들에게 각 인시키고 싶음. 트렌드 발산.
라이팅 인스톨레이션 실행 인력과 아이디어 구현 방법?	특징적인 상징물은 꼭 필요. 라이팅이 아니더라도 러버 덕과 같이 시민들이 각인할 수 있는 인스톨레이션을 구현할 것.
또 하나의 아이콘이 필요한가?	DDP건축물은 물론 그자체로 상징물이지만, 디자인워크 행사의 상징물 별도로 생성할 필요성.
2017성공지표는?	모객수

회의록 앰허스트 총평

- 너무 큰 것을 생각하는 것 같다.
- 제안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난다.
- 이슈메이커.
- 방향이 너무 거대, 실행가능성에 의문. 브랜딩 전략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음.

심사위원 의견서

- 적은 행사비용에 너무 많은 내용이 나열적으로 담겨있는 듯. (이름은 언급X)
- 실제 실행 가능성(이름은 언급X)
- 플랫폼 관련 의견 및 지향점은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은 바른 방향으로 보여지나, 실행에 대한 기획 및 과정은 검토가 필요한 제안.

전반적인 코멘트

- 행사 자체에 대한 이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이를 확장시킨 제안서를 내놓은 것이 공통적.
- 예산과 실행여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.
- 실제 예산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정리 필요.
- 브랜드 정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람.
- 서울 HOT PLACE 중심의 홍보 및 행사 필요. 서울 전역의 행사로 연계.
- 국내 디자인 에이전시 및 젊은 디자이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함.
- 서울디자인워크의 주제는 'DESIGN'. 매해 바뀌는 컨셉이 Style이어야지 주제가되면 안된다고 생각.